



‘짚풀인생 짚풀예술’

오는 28일까지 오월미술관에서 열리는 김호순 작가의 ‘짚풀인생 짚풀예술’ 전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짚풀공예’에는 삶의 지혜 담겼죠”

김호순 전...28일까지 오월미술관 망태·술병바구니·독·명석 등 전시

계란을 넣어두는 망태, 짚으로 엮은 독, 풀로 짠 가방, 짚으로 만든 술병 바구니, 날썩은 명석... 오월미술관(관장 범현이) 짚풀공예전에서 만나는 전시작품은 흔히 볼 수 없는 물건들이다. 오랜 세월 우리 삶과 함께였지만,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이다.

전시작품을 만든 이는 짚풀공예가 김호순(72) 작가다. 옛 모습을 살린 것도 있지만,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해 제작한 작품들은 생활용품으로 쓰임새가 그만이다. 마른꽃을 담아두는 화병이나 와인 주머니 등으로 쓰면 제격일 듯하다.

14일 광주 예술의 거리 김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무등갤러리 옆 지하 공간에 자리한 그의 작업실 겸 전시장의 두터운 나무문을 밀고 들어서면 단박에 시공간을 이동하는 느낌이 든다. 작품의 재료가 되는 지푸라기와 다양한 풀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다양한 짚풀공예품이 한가득이다.

김 작가는 지난 2003년 이후 20여년만에 오월미술관(28일까지·동구 문화전당로 29-1)에서 열리는 초대전 ‘짚풀인생 짚풀예술’을 통해 작품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큰 욕심 없이 시작한 전시입니다. 사람들에게 ‘짚풀공예’라는 게 있다’ 이것만이라도 알릴 수 있기를 바랬네요.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사라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더 없이 좋구요.”

순재주가 좋았던 김 작가는 지난 1980년부터 다양한 공예 분야에서 활동했다. 양초, 매듭, 염색, 목각 등을 했고 특히 등공예 부문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늘 ‘우리 것’이 아니라는 데 아쉬움이 있었고, 1990년 짚풀공예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들어본 게 큰 도움이 됐지요.



광주 예술의 거리 작업실에서 만난 김호순 작가.

등공예 엮는 방법이 짚풀과 비슷해 짚풀공예를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었거든요. 자칫하면 옛날 것을 답습하는 데 머무르기 쉬운데 이런 저런 공예품을 만들어봐서 새로운 작품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운영하는 인병선 관장과의 인연으로 서울에서 활동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한마디씩 하곤 했다. “무등산이 가지 마라고 합니다”라고. 그는 짚풀공예를 하며 무엇보다 허투루 만들지 않았던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접하고 감각감각 놀라고 몽클레진다고 말한다.

“짚풀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꼭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육적인 차원에서요. 명석을 깔고 바닥에 지푸라기를 던져놓은 후 아이들에게 넘세도 말아 보고 맘대로 갖고 놀아보라고 합니다. 다양한 작품도 만들어보구요. 체험 참가자들도 참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접해볼 기회가 없었으면 좋지요.”

김 작가는 작업 중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면 시골 할아버지들을 찾아가 배우고 했다. 어르신들은 무엇을 전달하는 방법이 서툴다 보니 김 작가는 ‘짚풀기법 정리’를 제작했고, 이 교재로 사람들을 가르치니 효과도 좋았다.

사용하는 짚단은 유기농 재배나 낫으로 절단한 벼짚을 선호한다. 농약을 많이 쓰면 푸석푸석해지고 트랙터

로 지른 벼단도 길이가 짧아 불편하다. 짚단은 시골 지인들에게 가져오기도 하고, 그의 작업을 알고 있는 이들이 추수 때가 되면 쟁쟁 두었다가 전달해주고는 한다. 또 락, 왕골 등 다양한 풀도 사용한다. 최근에는 공산품으로 나오는 종이끈을 활용한 지근공예도 진행중이다. 바늘 대신 손가락을 활용해 뜨개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다.

김 작가는 짚풀작품에는 조상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곡식을 넣어두는 짚독은 통기성이 좋고 습기가 차지 않아 좋다. 달걀 망태를 처마 밑에 걸어두고, 산으로 약초 캐러 다닐 때는 방석을 겸한 망태기를 사용했다. 지치면 방석처럼 사용하며 앉아서 쉬고, 귀히 얻은 약초를 넣어두는 것이다. 등잔불에 사용할 석유, 산소에 가해질 소주 등을 담은 ‘뒹방’이 깨지지 않도록 짚을 엮어 만든 용품도 있다.

“모두 보기에 좋으면서도 실용적인 것들이예요.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쓰셨지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짚풀공예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짚이나 풀을 보면 별걸 다 시도해 보는 그의 손은 투박하다. 그는 어느 순간 손을 감췄는데, 지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웃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7·24일 광주극장서 개봉해요

로맨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관객과 만난다.

광주극장은 오는 17일과 24일 개봉하는 영화들을 공개했다.

먼저 17일 개봉하는 ‘리코리쉬 피자’는 사랑에 빠진 소년과 소녀의 불안한 20대를 지나고 있는 알라나의 뜨거웠던 여름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켈리포니아 샌 페르난도 밸리를 배경으로 70년대의 낭만을 풀 토마스 앤더슨 감독만의 감성으로 그려낸다.

같은날 개봉하는 ‘전투왕’은 ‘누가 전투왕인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 이후 사회 각계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군부독재와의 싸움을 이어온 인물들을 조명한다. ‘다이빙벨’,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의 다섯번째 다큐다.

여든두 살 순악 씨의 전정 같은 삶을 그린 영화 ‘보드랍게’ (24일 개봉)는 기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작품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 박문철 감독은 해방 후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하며 삶이 곧 전장이었던 시간들을 조명함으로써, 일본의 책임을 묻는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못한 한국사회의 문제를 짚는다.

‘오만과 편견’, ‘어론먼트’의 조라이트 감독의 뮤지컬 로맨스 ‘시라노’는 24일 개봉한다. 영화는 사랑을 대신 써주는 남자 ‘시라노’와 진실된 사랑을 원하는 여자 ‘룩산’, 사랑의 시를 빌려 쓴 남자 ‘크리스티앙’의 엇갈린 로맨스를 그린다.

윌리엄 니콜슨 감독의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도 같은날 스크린에 오른다. 작품은 29년을 함께했지만 서로를 몰랐던 한 부부와 이들의 아들이 겪는 감정을 다룬 드라마다. 남편 에드워드 가 갑자기 아내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 가족의 일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문의 062-224-585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영화 ‘리코리쉬 피자’

- ‘리코리쉬 피자’
- ‘전투왕’
- ‘보드랍게’
- ‘시라노’
-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

무대 위에 펼쳐지는 ‘경계와 소외’

‘ACC-R 시어터’ 레지던시 선정작 2편 공연... 19일 예술극장 1

자신과 타인의 소유를 가르는 경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분리하는 경계 등 일상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경계는 제한, 억압, 폭력을 낳는다.

경계와 소외 문제를 실험적으로 형상화한 2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예술극장 1에서 ‘ACC-R 시어터’ 레지던시 사업 결과물을 선보인다. ‘이 곳에 새는 없다!’와 ‘고요한 목소리’ 등 두편이 그것.

“ACC-R 시어터”는 실험적인 작품을 발굴해 창작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이다. 이번 두 작품은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랑스 메디 파르즈푸어와 이탈리아의 빌로우라 인터컬처럴 아트 콜렉티브 등 두 해외 창작진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국경과 분열’, ‘여성 소외문제’를 주제로 연구와 창작을 통해 마련했다.



빌로우라 인터컬처럴 아트 콜렉티브 ‘고요한 목소리’ 시연 장면.

〈ACC 제공〉

먼저 ‘이 곳에 새는 없다!’ 경계, 국경과 관련한 고민을 현대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란 출신의 프랑수아 메디 파르즈푸어가 연출했으며 다양한 경계가 야기하는 억압 등 부정적 측면을 영상과 몸짓으로 들여다 본다.

이탈리아의 빌로우라 인터컬처럴 아트 콜렉티브의 ‘고요한 목소리’는 매춘, 인신매매 등 민감한 사회적 주제를 춤과 영상, 소리 예술로 접근한다. 특히 한국의 피

해 여성들, 사회 복지사, 인권 운동가의 증언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성매매와 착취 뒤에 가려진 여성들을 조명한다.

두 작품 공연 시간은 각 50분이며 1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공연이 끝난 뒤 창작자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콜렉티브 에이의 예술감독이자 현대무용가인 차진엽이 진행자로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확인.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민정치학교 시누다’

3월2일부터 가톨릭평생교육원...박동천 교수 ‘시민의 소리’ 첫 강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그리스도교 사회를 가치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민정치학교 시누다’(시민정치 누구다 다한다·이하 시누다)를 마련했다.

시누다 강좌는 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노동, 인권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연을 한다.

먼저 오는 3월 2일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이, 9일은 ‘시민의 소리’(박동천 전북대 교수)가 진행된다. 16일과 23일은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지병근 조선대 교수가 강연한다. 30일은 양지열 변호사가 ‘헌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이어 ‘평화의 주체는 누구인가?’(4월 6일,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갈등에서 협의로, 협의에서 통합으로’(13일, 김동준 성공회대 교수), ‘자본주의 살만인가?’(20일, 흥기반 캄볼라니사회경제연구소 박사), ‘누 떠보니 선진국’(27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땅의 개념’(5월 4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대표), ‘정치와 경제의 관계’(11일, 장시복



전남대 김상봉 교수



조선대 지병근 교수

목포대 교수), ‘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는가?’(15일, 강인철 한신대 교수)가 진행된다.

하반기 첫 강의는 9월 7일 장현업 이화여대 교수가 ‘다문화, 위기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문을 연다. 이 밖에 정준희 한양대 교수의 ‘미디어의 힘’, 김상봉 전남대 교수의 ‘개인화 공동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 등이 마련돼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무료. 참가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로 등록. 문의 062-380-229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음사 세계문학 400권 돌파

‘호밀밭의 파수꾼’ 최다 판매

민음사가 펴내는 세계문학전집이 400권을 돌파했다.

민음사는 세계문학전집 400번째 책으로 김수영 시인의 ‘시어, 짐을 뺐어라’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400권 발간은 1998년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첫 책으로 낸 지 24년 만이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은 지금까지 35개국 작가 175명의 작품 318종을 소개했다. 판매된 책은 2천만 부를 넘는다.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었다. 이 책은 105쇄를 찍으며 57만 부가 팔렸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54만 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44만 부 판매되며 뒤를 이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41만 부), 조지 오웰의 ‘1984’(31만 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24만 부) 등 10만 부 이상 판매된 작품도 40여 종에 달한다.

민음사는 그림 형태의 ‘그림동화’, 마셜 몽테뉴의 ‘에세’, 페르난도 비에호의 ‘알살자들의 선군’,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 등으로 전집 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